

제 1 회

경기북부 청년거버넌스 포럼

2020. 7. 17.(금)
18:30~20:30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차 례

포럼 개요	1
타임라인	2
[세션 1] 기조강연 자료	3
[세션 2] 지역별 100초 발표 내용	19
[세션 2] 지역 청년 간 대담 사전 질문 & 답변	25
경기북부 청년거버넌스 포럼 선언문	30
리플렛 시안	31
메인 포스터	32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목 적

-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북부 지역별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성 현황 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 타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통한 거버넌스 참여 청년 역량 강화 및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청년 문화 및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청년 네트워크 구축

□ 행사개요

- 주 제 : 경기북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20. 07. 17. (금), 18:30 ~ 20:30
-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 주 최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주 관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프로그램 구성

- **아이스브레이킹** (사회자 이사야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 **개회선언 및 축사** (오세제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외 3명)
- **세션1 : 기초강연** (조은주 (가)청년신희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
- **세션2 : 사례 발표 및 대담** (각 지역별 대담자 1인)
 - ‘우리 지역은요...’
 - 지역 청년 간 대담 (좌장 : 이사야)
- **세션3 : 경기북부 청년 의견나누기**
 - [우리의 참여는 00 이다.] [내가 바라는 경기북부는 00이다.] 빈칸 채우기
 - 온라인 참여자와 함께 하는 시간
- **포럼 선언문 발표**
 - 온라인 참여자와 현장참여자가 함께하는 선언문 발표

□ 타임라인

시 간	프로그램	
18:00 - 18:20 (20")	참석자 등록	
18:20 - 18:30 (10")	식전 프로그램	아이스 브레이킹
18:30 - 18:45 (15")	개회	개회선언 및 축사 • 개회선언 : 오세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 축사 : 김경환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장 조성환 경기도의원, 파주1 오세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홍성표 양주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양주시의원
18:45 - 19:05 (20")	세션 1	
	기조 강연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 • 조은주 (가)청년실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19:05 - 19:50 (45")	세션 2	
	100초 사례 발표	“우리 지역은요...” 순서 : 고양→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
	지역 청년 간 대담	좌장 • 이사야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대담자 • 김지현 (파주시 청년위원회) • 여운태 (김포시 청년정책위원회) •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협의체) • 조한나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 김동현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 김경준 (동두천시) • 김혜영 (의정부시 청년정책협의체)
19:50 - 20:00 (10")	세션 3	
	온·오프라인 의견 나누기 (빈칸 채우기)	[우리의 참여는 _____ 다.] [내가 바라는 경기북부는 _____ 다.]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의 답변 및 세부 인터뷰 진행
20:00 - 20:10 (10")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선언문 선언	
20:10 ~ 20:15 (5")	폐회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과 청년 마주보면 달라질 일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

2020. 07. 17(금)



(가)청년신탁추진위원회
조은주 사무국장
(cej860405@naver.com)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강사 프로필

반민반공의 자아
(전)시흥시 청년정책총괄 디렉터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시흥청년아티스트 Maker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초동 멤버, (전)운영위원
(인제모임, 호평이모임, 지역방랑단 등)



조은주(00-Linker)

#청소년 #미래세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공동대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지역살이 #사회혁신 #지역상생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협의체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

#대안금융설립 #시민은행장찾기
(가)청년신탁추진위원회 사무국장



Contents

- 👉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 👉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 👉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향

👉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시작

Paradigm1 / 2003년 ~ 2014년

청년고용대책 “일자리 정책” 중심

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약칭 : 청년고용법)

[시행 2004. 6. 6.] [법률 제7185호, 2004. 3. 5.,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령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시작

Paradigm1 / 2003년 ~ 2014년

노무현 정부(2003년)

청년실업증합대책

구분	내용
정책목표	사전적 예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대책 : 새로운 일자리 창출(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주5일 근무 워크 셰어링 등), 대학교육 개혁 및 산학협력 강화, 중앙고용정보원 설치 및 노동시장 인프라 완비 ✓ 단기대책 :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직업체험 기회 제공, 민간기업 채용 촉진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능 활성화 (Work-Net 구축)
추진체계	대통령 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전환

Paradigm2 / 2014년 ~ 현재까지

사회정책으로 전환

조례

-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100%)
- 기초지방자치단체 159개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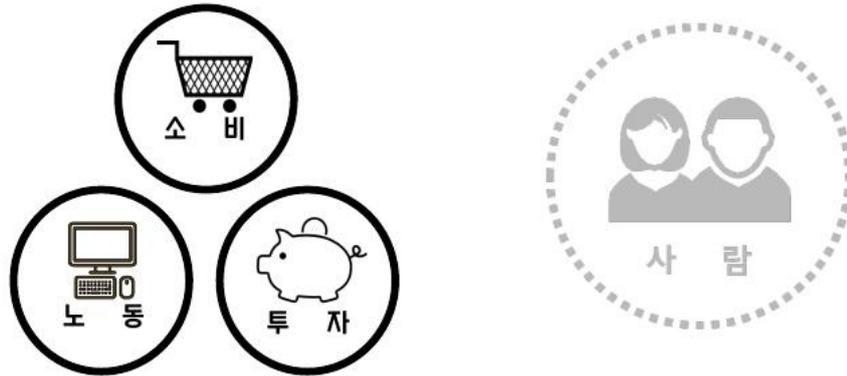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전환의 계기, "사회적 불평등 문제 심화"

Demographic Cliff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전환의 계기, "사회적 불평등 문제 심화"

Social crisis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
"빈곤의 함정"
(Poverty Trap)

- 인구 절벽
- 교육절벽
- 취업·창업 절벽
- 일자리절벽
- 임금절벽
- 주거절벽
- 금융절벽
- 재벌절벽



"부모로도 살기도 힘들지만
자녀로도 살기도 힘듭니다."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전환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Paradigm shift

일자리 정책의 성공지표
||
0명 취업, 고용률 0% 상승

정부 보조금 지원 위주의
창업 정책

사중손실 발생



"강과 바다는 물이 말랐는데,
자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네요.;"

"강과 바다에 물이 흐르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지역 청년 활동가 워크숍 중 ('16. 02. 13 ~ 14)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전환 "일자리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Paradigm shift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전환 "사회적 배제를 넘어 참여를 기반으로 "



Invisible citizens

실재적 존재의 부정을 겪는 지역의 청년들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발전사와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전환 "사회적 배제를 넘어 참여를 기반으로 "

시정을 디자인하는 Social Artist

시흥청년아티스트

우리를 위한 정책이라면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 당사자, Civic Movement



주민청구,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제정운동

“청년이 움직이다.”
“지역을 움직이다.”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의 위치, Change Maker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0. 4>

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
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3.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4.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1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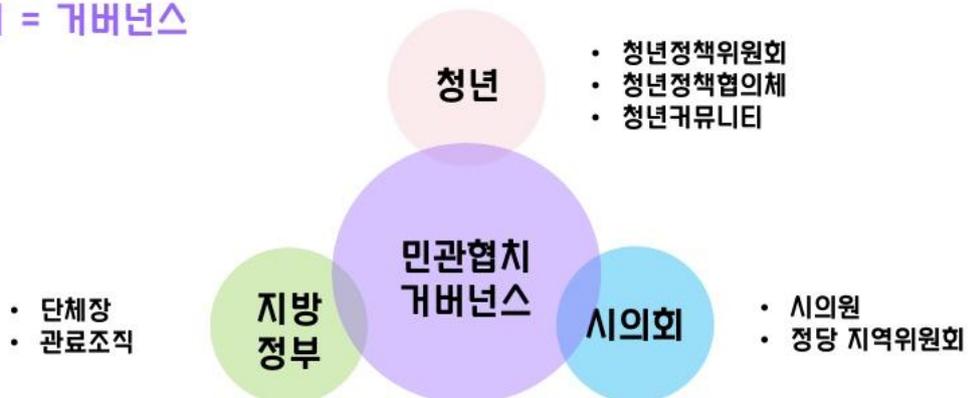
제1회 경기도청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협의체 = 거버넌스



제1회 경기도청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사회참여



제1회 경기도청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교육문화



제1회 경기도청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복지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청년정책네트워크)

노동인권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참여보장 공식화



제13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7〉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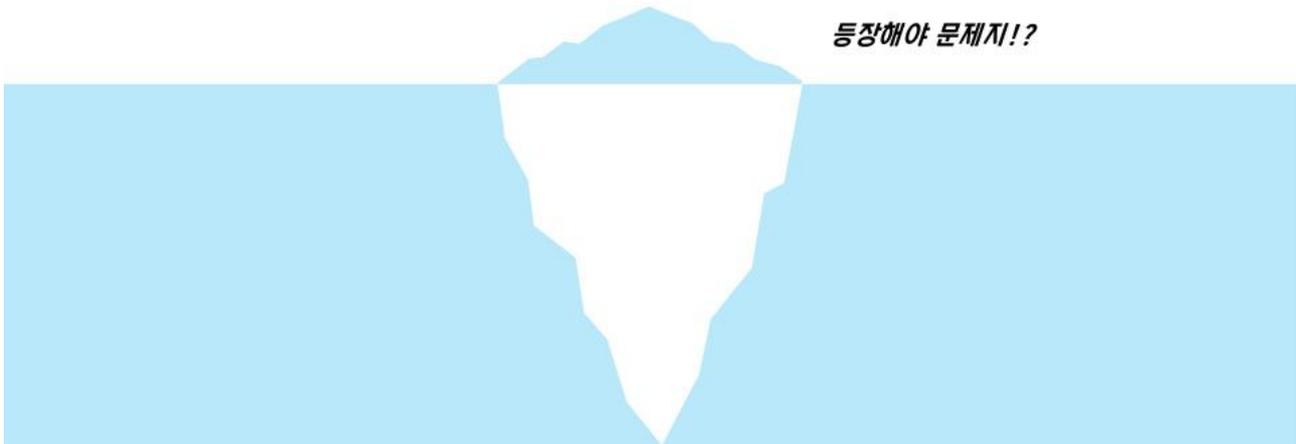
지역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례 :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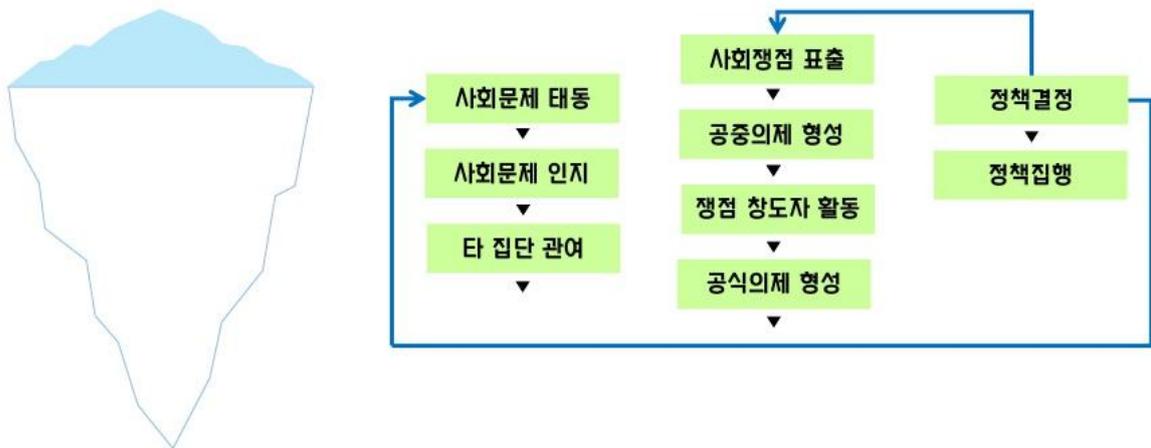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행정이 이해하는 사회문제

행정이 감각하는 사회문제 “빙산의 일각”



‘어떻게 수면위로...’ 정책의제 형성과정모형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framework)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향

'청.알.못 행정', '행.알.못 청년'

복잡한 다층적 **사회문제**



청.알.못 행정,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

거버넌스 = 협치

정책의 진단, 수립, 실행 등 전 과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해 나아가는 것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향

우리의 Position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알릴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 모집

1명이 아닌 **N개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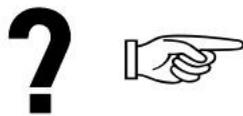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구조가 만드는 해결법
청년정책네트워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만듭니다."*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청년정책 거버넌스 발전 방향



혼자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낫다.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 **고양시**

#청춘창업소 #청취다방 #청년정책_원년 #협의체+위원회만_70명

고양시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19년은 청년 중심의 민관거버넌스 기틀을 세우는 ‘청년정책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청년소통 활성화의 해’를 비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모아 추진하는 해입니다.

청년참여 측면에서, 현재 고양시의 청년정책은 두가지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역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는 교육·인권·일자리·문화예술·창업·생태환경 등 참여 청년들의 관심사에 따라 6개 분과로 구성,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활동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 구성과 활동은 고양시 청년기본조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7번째로 뒤늦게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주요 목표였던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별도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 간 협력과 소통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상호 시너지를 발현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양시 청년거버넌스의 대표적이면서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면, 청년창업가 지원공간인 ‘28청춘 창업소’와 소통과 문화공간의 거점공간인 ‘청취다방’ 설립 추진 과정에서 공간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한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년정책협의체 단체 카톡방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 회의에 참여 가능한 청년위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었고, 이후 시 청년정책팀과 회의함으로써, 청년들의 니즈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한 부분에 거버넌스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실제 공간 탐색과 음료 구매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물론, 기존 취업에 치중된 프로그램 외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요가 강의 등 청년들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거나 그 기반을 만드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현재도 직무강의·일자리상담·자기소개 컨설팅과 같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쿠킹클래스·심리상담·인문학 특강·원예심리 치료·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낮 시간대에도 여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관이 주도하여 만든 기구일지라도 결국 수혜자이자 제안자는 청년입니다. 관이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놓치는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청년 거버넌스의 기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기북부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여, 보다 청년 친화적인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포시

#김포시_평균연령_38.5세 #2개의_청년지원센터_운영 #김포시_8대_공약사항_도전하는_청년도시

김포지역의 청년모임은 사회적기업 어웨이크에서는 김포 지역의 문화소외현상과 청년들의 고립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김포동네파티라는 것을 기획하였습니다. 김포에 이사온 청년들을 위한 환영파티였습니다. 김동파를 비롯한 모두의밥상, 김청창생(김포청년창업생존기)교육등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의 결과로 2018년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김포이웃청년네트워크가 구성되었습니다.

김포시는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도전하는 청년도시가 8대 공약사항에 포함되에 청년이 김포의 미래를 이끌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제시되었고, 2018년 11.13일 김포시 청년기본 조례안 통과되고 이에 따른 청년정책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이 구성되었습니다.

김포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의 시의 과장님과 시의원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청년네정책네트워크는 진로, 주거, 문화, 소통, 경제 분과로 총 31명의 위원들이 1기로 활동중입니다. 현재는 김포시 아동청년과가 청년정책의 주무부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평균연령 38.5세의 젊은 도시이고, 경기 지역 내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정주하기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현재까지는 서울이나 대도시를 기반으로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발굴하고, 연결하는 김포시의 청년 거버넌스를 꿈꿔봅니다

□ 동두천시

#정책위_결성_중 #청년공간_개소 #청년인구_적지만_강하다

현재 동두천시 인구는 94,143명 , 그 중 20세~39세 청년은 21,500명입니다. 22.8%로 5분의1 인구가 청년입니다. 수치가 무엇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책 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고, 저는 그저 21,500명 중 한명일 뿐입니다. 정책과 조례 등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이 대외적 활동을 처음 하는 것이고, 알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명중 1명이 청년이지만 동두천에서 청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청년 활동을 하는 청년을 찾기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 할까 저는 생각하다 보니, 청년활동, 청년정책위원회 활동, 조례제정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모으고 함께 웃고 즐기며, 나 와 너가 아닌 우리 라는 이름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지금의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거버넌스 포럼에 참여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껴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며,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청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지 상태인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제가 청년들에게 전달한다면,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고, 현실적일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동료로 모집하는 과정은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말도, 좋은 말도, 좋은 활동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 동두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선

택한 방법으로 청년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우리의 동료 모집하기 위한 방법은 자유와 즐거움입니다. 수 많은 청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겉으로만 청년을 위한 많은 제도들과 예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청년들은 정말 행복해 할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양복이 들어왔을 때에 양복을 입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저런 옷을 왜 입냐고 모두가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요즘은 양복 한 벌 없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은 그런 총알받이가 필요하고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할, 후를 위한 지금의 총알을 받으며 견딜 청년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들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못난이 인형처럼 못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동두천을 목표로 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도전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동두천에 대한 이야기라 모든 것이 그냥 허상과도 같은 이야기들일 뿐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천 늙은청년 김경준입니다.

□ 양주시

#양주시청년센터_조성 #정책위_매월_정기회의(부지런) #민_관_연결의_브릿지

양주시는 2018년 8월 양주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2019년 11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양주시청년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 2020년 1월 양주시청년정책위원회를 위촉하였습니다.

양주시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8명은 당연직위원과 함께하는 정기회의 이외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양주시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양주시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민·관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소통전달체제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합니다.

분명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양주시청년센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예산 출처가 다를 순 있으나 주관부서가 다르다는 점은 청년들과 활동하는 저희들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니 제대로 된 다방면의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제스처는 없고, 양주시 청년센터에서는 일자리정책 주관이니 창업지원 및 일자리 정책에 치우친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읍신도시의 개발과 옥정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 증가와 활동 증대로 인해 양주시는 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경기북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시 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삶을 위해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또는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청년 관련 전담 부서 또는 기관을 통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청년 정책의 기반을 잡고 시행할 수 있게 하여 양주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또는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의정부시

#청년정책협의체_구성_완료 #경기북부의_중심_의정부시 #코로나19로_발대식_취소...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청년 협동조합, 스무살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청년정책협의체 소속 김혜영입니다.

의정부시의 청년(만 19세 이상~34세 미만)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9만 4567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9월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10월 교육청소년과 내 청년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년정책협의체는 2019년도 한차례 모집을 시도한 이후, 2020년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재모집을 통해 총 50명의 청년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협의체 내에서 선발하는 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의 성별은 남성 30명 여성 20명이며, 연령은 25세 이하 21명, 26세~29세 18명, 30세~34세 1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종은 직장인 26명, 대학생 15명, 취준생 4명, 예술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분과, 교육·홍보 분과, 문화·예술 분과, 주거·복지 분과, 총 4개 분과이며 협의체 지원 신청서에 관심분야 1순위, 2순위를 기록한 것을 토대로 각각 12명~13명의 청년들로 분과를 선정하였습니다.

본래 지난 달 26일에 발대식을 진행하고 협의체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면 발대식이 취소되고 위촉장이 집으로 배송된 상황이며, 7월 중으로 진행될 첫 분과별 모임을 기점으로 협의체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에 머무르며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시

#파주시_인구_중_청년비율_24% #2019년_청년_기본_조례_제정

안녕하세요. 파주시 청년위원회 소속 위원 김지현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인구는 전체 456,000명이며, 그 중에서 조례에 따른 청년은 대략 110,000만 명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은 소통·참여, 취업·창업, 복지·문화의 3개 분야 총 40여개의 청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청년 조례 제정의 바람을 타고 파주시도 작년부터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과 같은 여러 청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청년 활동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례 공포 이후 파주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파주시 청년이 참여하는 ‘파주시 청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고, 공식적인 위촉을 받기 이전인 작년 12월 27일 ‘파주시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현재 파주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정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들의 방향성과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이르러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청년을 포함한 전문가, 지역의 관련 기관장 등 다양한 분야 30여명의 위원이 공식적으로 위촉되어 ‘파주시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정책의 심의 및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장과 사전 희망 조사를 통해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 경우 본래 계획대로라면,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주제에 대한 파주시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례에 의거한 파주시 내 공식적인 청년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파주시는 지난 1월 말의 위촉식을 끝으로 별다른 회의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막 출범했거나 파주시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기 북부의 타 지역 청년 여러분과 공통의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기위한 협력과 연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파주시 청년위원회 김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시

#청년센터_설립_중 #청년_3만명_정예부대 #청년축제를_시작으로_청년문화_형성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컨텐츠 기업 DK COMPANY 대표이고, 현재 포천시청년정책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동현입니다. 포천시의 청년정책현황에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포천시는 인구 15만명중 약23%정도인 3만5천명정도의 청년인구로 경기도에 비해 5프로정도 낮은 편인 청년들이 살고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포천시는 19년2월27일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19년 7월2일 일자리경제과 소속 청년정책TF팀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년 9월4일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업무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용역자료로 포천시 청년들은 15%만이 삶에 만족함을 나타냈고 36%정도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함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는 청년들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로서 청년참여확대,청년역량강화,청년고용지원, 청년생활안정, 청년문화복지증진과 같은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포천청년의 눈높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책과 지원을 수행하며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의 필요 역량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신설된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촉직 9명중 청년위원 5명이 포함된 18명으로 구성되어 청년을 위한 다양한 분야별 추진사업을 진행하기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있고, 아직조례상에 청년협의체 구성과 관련 된 부분이 없어, 향후 청년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조례상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포털구축과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할 준비를 진행중이며, 청년스타트업, 청년PD, 청년샵등의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며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후 있을 토론들에서 저보다 더 다양한 청년들의 파트에 대해 많은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를 향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포천시 청년정책위원장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우리는 청년 거버넌스를 왜 시작하려 하는가?

A. (동두천) 사실 거버넌스의 사전적 뜻만 알고 있을 뿐,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 말고도 대한민국의 대다수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고, 줄어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저자원으로 사용해서 고성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아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A. (고양)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곤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곧잘 해보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어디에, 어떻게 제안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시가 귀 기울여 들어줄 ‘소통 창구’ 기능을 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김포)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구조, 정책적 문제를 연구하고,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A. (양주) 양주시는 인구 22만중 청년의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정책 시행계획 내에는 청년 분야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는 정책 예산이 배정되어 있겠지만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년은 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습니다.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유는 청년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중요한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서입니다.

A. (의정부) 의정부 역시 청년 단체, 청년 활동가가 없는 지역이다보니 청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협동조합이 3년차로 접어들며 먼저 찾아주시기도 하지만, 초반에는 관과 소통하는 방법도 몰랐고,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활동 지원에 대해 이야기할 창구가 필요하여 청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외쳐왔고, 이제는 관과 연결고리가 없는 청년들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기 위한 중간 지원 역할도 충실히 하려 합니다.

A. (파주)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한데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청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A. (포천)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대에 맞추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배울 수 있고,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듣고 자신이 필요한 영역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어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고민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많은 청년들이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A. (고양) 막연한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지금 생계유지도 바듯한데, 괜히 참여했다가 힘들지 않을까’ 등의 고민이 참여를 하는데 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현실화되어 성과를 내면서 성공적 사례로써 효능감을 부여하게 될 때,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김포) 정책을 만드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말하였지,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회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공동체와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보았던 이들에게 필요한 상향식 근본적으로 청년에서 출발한 청년정책의 성공을 성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말입니다.

A. (동두천) 무게의 낮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정책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에 미리 겁을 먹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워 져야 합니다.

또한 관심이 있는 소수의 청년을 제외하고는 많은 청년들이 거버넌스가 사전적 의미만 알 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거버넌스에 참여 하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모여서 너희가 만들어가는 것, 거버넌스로 바뀔 세상’에 대해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단계가 없이 시작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 (의정부) ‘정책’이 낯설어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정치, 정당, 정책에 거리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는 ‘청년 정책’ 역시 내 삶과 동떨어진 다른 영역의 일만 같습니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내가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극히 일상적인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자리들이 몇 차례 있어왔는데, 의견들이 반영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경험이 없다보니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은 피로감만 불러일으키고 참여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청년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경험과 성취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청년 거버넌스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 청년 거버넌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은 단계의 참여부터 이끌어내어 점차 적극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의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합니다.

A. (양주) 청년에게는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되어 있음에도 정책들은 취업과 창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취업, 창업 등의 청년 문제도 시급하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청년들의 욕구를 해결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이 영향력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입구전략은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 경험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출구전략은 아직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청년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년문화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파주) 대다수의 청년이 지역에 거버넌스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존재 여부는 알더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참여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청년 거버넌스를 알리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내·외부의 적극적 지원 조직 마련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이를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조직이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효용성이 크지 않은 거버넌스에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청년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관의 열린 태도와 지속적으로 청년 거버넌스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이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A. (포천)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비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라 생각함과 동시에 현재 청년 세대의 제일 큰 걱정인 일자리, 직업 등의 문제가 거버넌스 구축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마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어 낸다기보다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청년들의 실제 사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과정들을 노출한다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청년 정책의 당사자로서, 청년 주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A. (고양)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운영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출을 기반으로 하며,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는 구성원 누구에게도 책임감과 활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도입하여, 한명 한명이 참여와 활동의 주역이 되도록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A. (김포) 청년들을 위한 정책학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협의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회의체계가 아닌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반영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A. (동두천)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총알받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거버넌스를 지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내가 어떻게든 짊어지고 노력해 볼 테니, 무엇이든 좋으니 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자유를 줄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의지가 움직이는 정도만 참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어제 나 없이 재미있게 논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섭섭하고 나도 어제 갈 걸 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자유를 주고 꾸준한 우리의 즐거운 거버넌스를 만들며 이를 보여 주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 (양주) 청년 당사자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위해선 현재 청년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하고 그것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활동경험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출구가 되어 청년의 목소리가 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A. (의정부) 위원회에 당연직의 인원을 1-2명으로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인원은 위촉직으로 청년 당사자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청년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공동위원장으로 명시되는 것부터 진정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부서 내에 지역별 청년 정책 위원장 및 사무국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거버넌스 운영이 부수적인 지역 활동을 넘어 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관과 연결되는 다리를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개입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파주)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의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일차적 활동과 운영의 주체는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운영의 방식이 위에서 내려 보내는 하향식 운영이 아닌 청년의 요구와 바람을 토대로 각 지역의 문제와 청년 문제들을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상향식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모이고 조직된 청년들의 참여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A. (포천) 현재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인 문화공간을 민간주도로 구축해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기획하고 활동함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토크콘서트와 프로젝트를 녹여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들만의 생태계를 형성시킴으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듯 거버넌스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Q. 경기북부 청년들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A. (고양) 다양한 영역에서 총횡무진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연대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지역사회가 청년들에게 개방적이기 보다 닫혀있는 상태에 안주하게 되면, 그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육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취해도 좋고, 지역 시민단체의 주도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저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줄 중간다리만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A. (김포) 청년들에게 지역사회는 삶의 터전입니다. 구성원이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여론의 형성, 그리고 정책의 도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느리게 만들어가는 연대, 느슨하지만 방향을 함께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A. (동두천) 경기 북부 청년들 간의 연대는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의 모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다보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자신 단체의 홍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몇몇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그런 개인의 욕심에 의해 고되고, 지루해지는 상황들에서 꼭 연대가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연대는 자신의 것을 조금은 양보하여 내려놓고, 나와 네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청년들의 연대가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것에서 나의 단체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고, 나의 PR이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 모두를 알리는 것에 힘쓰고, 우리는 마음이 맞는 청년들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경기북부 청년들이 해야 할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데로 이해를 해주고, 내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 (의정부) 대체로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이 그러하듯이, 청년 거버넌스 활동 및 운영 역시 관에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청년 스스로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대체로 거버넌스가 이제 막 구성되고 운영되는 시기이거나 청년 활동의 규모나 정책 참여의 단계가 비슷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거버넌스 운영 체계, 청년 문화 형성과 같은 부분들에 공통적인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충족시켜 나가며 서로 보완하고 지원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포럼이나 간담회와 같은 자리도 매년 만들어 협력하는 연대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A. (파주) 청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은 아직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기성세대’나 ‘주류세대’가 아니다보니 때때로 청년의 의견은 묵살되고,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개인’ 청년은 사회에서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기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지역과 더 넓은 사회의 문제를 함께 연대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청년’도 이 사회에 살아가는 주체임을 알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청년 공동의 요구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A. (포천)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을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의 활동입지를 만들고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함께 해야 합니다.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선언문

‘청년이 있는 곳에는 꿈과 미래가 있다’

청년(靑年), 사전적 어원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청년 시기는 독립된 주체로서 청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때입니다. 청년이 겪는 문제는 당사자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아가야 할 범 세대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관 주도로 일관되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을 수 없습니다. 민간의 협력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당사자의 목소리가 보다 선명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참여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이 사는 우리 경기도. 우리가 겪는 청년의 나날은, 이전 세대의 경험이었으며, 다음 세대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청년시절이 아픔과 열정을 요구하는 시기가 아닌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때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명의식을 가지고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참석자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경기북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하나,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자발적으로 청년 정책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하나,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청년 거버넌스와 함께 산재되어 있는 각 지역의 청년 현안 문제를 고민하겠습니다.

하나, 차별과 불공정으로 소외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제1회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참여자 일동

새로운 경기 > 임정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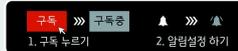
제 1 회
**경기북부
청년거버넌스
포럼**

2020. 7. 17.(금)
18:30~20:30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경기도 양주시 위암사지
야외공연장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해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경기도'를 찾아주세요

YouTube 경기도청 유튜브
<https://youtube.com/user/ggholics>



공/지/사/항/

안전한 포럼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를 운영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포럼 시작 **10분 전** 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방율이 뛰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주관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 타임라인

시 간	프로그램
18:00 - 18:20 (20')	참석자 등록
18:20 - 18:30 (10')	식전 프로그램 아이스 브레이킹
18:30 - 18:45 (15')	개회 개회선언 및 축사 • 개회선언 : 오세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 축사 : 오세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조성환 경기도의원 파주시 홍상표 양주시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양주시의원 김경환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장
18:45 - 19:05 (20')	세션 1 기조 강연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 • 조은주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19:05 - 19:50 (45')	세션 2 100초 사례 발표 “우리 지역은요...” 순서 : 고양-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 좌장 • 이사야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 김지현 (파주시 청년위원회) • 여운태 (김포시 청년정책위원회) •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협의회) • 조한나 (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 김동현 (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 김경준 (동두천시) • 김혜영 (의정부시 청년정책협의회)
19:50 - 20:00 (10')	세션 3 온·오프라인 의견 나누기 (빈칸 채우기) [우리의 참여는 _____ 다.] [내가 바라는 경기북부는 _____ 다.]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의 답변 및 세부 인터뷰 진행
20:00 - 20:10 (10')	경기북부 청년 거버넌스 포럼 선언문 선언
20:10 - 20:15 (5')	폐회

경기도 북부권역 8개 시·군 청년거버넌스 현황



M/E/M/O/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제 1 회

경기북부 청년거버넌스 포럼

2020. 7. 17.(금)
18:30~20:30

유튜브 생중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야외공연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

거리 두기 좌석

온라인 생중계

사전등록 필수

세션1:: 기초강연

조은주
지역 청년 거버넌스 구축 사례 및 발전 방향

세션2:: 100초 사례발표 및 대담

각 시군 청년대담자
“우리 지역의 청년거버넌스는요...”

세션3:: 포럼 선언문 발표

온오프라인 포럼 참가자 전원

주최/주관 :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해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경기도’를 찾아주세요

 **YouTube 경기도청 유튜브**
<https://youtube.com/user/ggholics>



1. 구독 누르기



2. 알림설정 하기

공/지/사/항/

안전한 포럼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를 운영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참석**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포럼 시작 **10분 전** 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